

명인명무의 신명가락 '섬섬옥수'에 실리다

동국예술기획 28~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정명숙 명인' 추모 35년간 3500여 예인 112회 공연... 한량무·장고춤·살풀이춤 등

"공연을 앞두고 갑작스레 이매방류살풀이춤 보유자 정명숙 명인이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어 황망했습니다. 전통춤연구보존회 등에서 우리 춤 연구에 평생 힘쓰셨던 분인데 안타깝죠. 포스터에는 일부러 고인의 이름을 빼지 않았습니다. 예인들의 공연을 하늘에서 관망하며 '살풀이'하라는, 일종의 추모 의미죠."

지난 16일 총장로 한 카페에서 만난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예술총감독의 말이다. 그의 말에서 정명숙 명인에 대한 소회와 우리 전통춤과 소리에 대한 애착 등이 느껴졌다.

오는 28~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112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섬섬옥수(纖纖玉手)'가 열린다.

주요 출연자 중 한 명인 '정명숙 명인'이 소천했음에도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1부 '명인명무전'과 2부 '전무후무'로 구성된 공연에 정명숙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생전 영상을 시청하고 묵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박 감독은 "명인 명무전'인 동시에 '추모전'의 성격을 가미한 이번 공연의 연장선에서 내년에는 판소리 명창 '임방울', 호남춤의 명인 '한진옥' 등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춤의 뿌리를 지키는 데 기여해 온 '명인 명무전'은 전통문화예술의 '맛'과 '맛'을 지켜온 전통 예술 브랜드 공연이다. 지난 1990년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국악원서 첫판을 벌인 데 이어, 35년 동안 3500명 예인들이 150개 분야에서 총 112회 공연을 펼쳐 왔다.

무대 위에서 명멸해 온 예인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조선시대 마지막 무동인 명무 故(고) 김천홍, 박동진을 비롯해 명무 김계화, 일인창무극의 공옥진, 배뱅이굿의 이은관, 여창가곡의 김월하 등이 명인명무전 출신이다.

한편 동국예술기획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이색적인 콜라보 형태의 판소리, 가야금병창, 영상과 음악으로 채워진다. 첫째 날인

28일은 '명인 명무전'이라는 주제로 명무들을 만난다. '섬섬옥수'는 주양자, '한량무'는 이윤제·이명순이 추며 '장고춤'은 조성란, 이용덕이 보여준다.

단국대 교수 김지원은 '살풀이춤'을, 박아립은 '밤길'을 펼칠 예정이며 우미애가 선사하는 '도살풀이' 공연도 이어진다. 김영옥 등 4인이 꿩과리를 들고 추는 '진쇠춤'과 김현지의 '진도북춤'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튿날(29일) '전무후무' 공연도 볼거리. 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보유자인 故(고) 정명숙의 '이매방류살풀이춤' 등을 추모 영상으로 감상하며 최선·최지원(호남살풀이춤), 고선아·송영은(강선영류태평무), 이길주(호남산조춤), 이성훈(동래학춤) 및 문명자(가야금병창) 등 전통 예인들이 공연장을 채운다.

우리문화예술원 및 전통문화예술단 굴림도 출연해 '풍물기원곡'으로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 교방의 기녀들이 놀이판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추던 '예기무'는 김광숙 명인의 춤사위에 실린다.

박동국 예술총감독은 "민족의 한과 죽음을 서러움을 '춤'으로 승화한 이번 공연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울림을 남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P 10만 원, R석 7만 원, A석 3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부채, 접시 등 소품을 활용하는 '예기무'를 선보이고 있는 김광숙 명인.



▶'강선영류 태평무'를 추는 서울시무형유산 한량무 보유자 고선아 명무. <동국예술기획 제공>

삶과 예술, 그리고 60명 제자와의 동행

서기문 전남대 교수 정년 기념전... 30일까지 전남대 기획전시실

우리는 매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물론 그 전에 침실에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행위로 아침을 시작한다.

'문을 연다'는 것은 물리적인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전과는 다른 곳으로의 나아가는 것을 전제한다.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의미를 담고도 있다.

서기문 작가(전남대 미대 교수)의 '문을 열며'라는 작품은 환상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이다. 마치 문을 열고 나가자 우주의 한 가운데에 떠 있는 장면을 형상화한 듯하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파란 하늘과 푸른 병풍로 이루어진 자연의 속살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나무줄기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케이블이 연결돼 있다.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구현한 작품은 자연과 문명, 인간과 자연을 상징한다. 얼핏 자연과 문명의 대립 같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의 해석을 요한다.

서기문 교수가 '삶과 예술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전남대 용지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20일~30일)는 서 교수 정년전으로 기획됐으며 서양화 전공 동문, 제자 등 인원이 있는 작가들 6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서 교수 50여 점, 참여자 60여 점 등 11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삶과 예술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 키워드는 전시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삶', '예술', '동행'은 작가로서, 스승으로서 또는 화가의 길을 함께 가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의한다.

서 작가는 지난 2010년 전남대 미술학과에 임용된 후 14년간 재직하다 오는 8월 정년을 맞는다.

이번 작품전은 그동안 작업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들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 시기 그랬던 '고립과 연결' 주제들을 기존의 '인간과 자연' 주제와 연계해 깊이 있게 천착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바이오필리아'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업시킨다. 무리지어 피어난 꽃이 하나의 트리를 이룬 모습은 정교함과 질서를 환기한다. 한편으로 작가는 '조화'를 매개로 자신이 지향하는 자연관, 인간관을 말없이 웅변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한편 서 교수는 "모교이자 몸담았던 전남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학생들과 함께 하며 공부하는 물론 영감, 열망들을 가질 수 있었다"며 "정년을 앞



'문을 열며'

두고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감사와 감회의 감정이 한데 뒤섞인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정년 후에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창작 세계를 향해 두뼉두뼉 나아가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민헌 소년합창단' 순천·목포 온다

25일 목포시민문화센터·26일 순천문예회관

'민헌 소년합창단' (지휘 람프 루트비그·사진)은 독일 문화의 중심지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6~14세로 이루어진 소년 합창단이다. 베를린 필, 뮌헨 필 등과 '바흐, 마태수난곡'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합창 및 솔로 공연을 펼쳐 왔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피렌체 오페라 등에서 2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중국, 캐나다 및 러시아 투어에서는 1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브라보콧이 '민헌 소년합창단' 내한 공연을 25일~26일 각각 목포와 순천에서 펼친다. 25일 오후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센터, 26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

공연은 바흐와 베르디, 모차르트 및 독일 포크송, 울드팝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명품 보이스로 들려줄 예정이다.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의 '오! 운명의 여신'이'를 시작으로 세계 모든 소년합창단의 단

골 레퍼토리 칼 젠킨스의 '아디에무스'가 울려 퍼진다. 로시니 '고양이 이중창'을 비롯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천란한 아침이 곧 밝아 오리니'도 관객들을 만난다.

대중적인 울드팝으로 마이클 잭슨 'Earth song', 아바 '머니, 머니, 머니', 퀸·프레디머큐리 '보헤미안 랍소디'도 들을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라이언 킹', '알리딘' OST도 공연장을 채운다.

공연을 기획한 브라보콧 김영민 대표는 "이번 내한공연은 소년합창단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들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선정했다"며 "소년합창단이 선호하는 아디에무스, 고양이 이중창 등을 다른 합창단 버전과 비교 감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A석 4만 4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5·18 창작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 앙코르 무대

소리공장, 25일 북구문화센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아이였던 '이하은'이 점차 40대 어른이 되어가며 느끼는 '역사의 성장통'을 뮤지컬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울려 퍼졌던 뜨거운 함성을 다시 한번 힘차게 재연해 보려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소리공장 대표 이선영 씨는 창작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 기획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리공장은 오는 25일 오후 3시, 7시 30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아버지의 일기장' 앙코르 무대다.

44년 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했던 비극적 역사를 주인공 '이하은' 가족의 모습을 통해 초점화한다. 여기에 밴드 라이브 연주를 곁들여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함성을 다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밴드 세션으로 김예진, 문태수, 양하랑 등 출연)

소리공장은 '라퐁젤'을 모티브로 종이 인형극을 첨가한 뮤지컬 등으로 지역 관객들을 만나 왔다. 이번 공연에는 공중호, 김민관, 라은비, 성진휘, 조호



창작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 커튼 콜 장면. <소리공장 제공>

진, 최기안 등이 출연한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광주의 민주적 땅", "계엄군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는 시민군 배우들의 모습은 생동감 넘친다. 모형 버스 위에 올라서 '자유'라고 쓰여진 큰기를 휘날리는 '평화시위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시민군을 막아서는 계엄군 배우들도 눈길을 끈다.

이선영 대표는 "민주주의를 향한 그날의 부르짖음, 광주 시민들에게 가해졌던 탄압을 뮤지컬을 통해 오늘날 광주에 다시 '소환'하고 싶다"며 "이 땅에서 벌어졌던 가슴 아픈 이야기와 진실을 입체적으로 그려 관객들의 공감대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석 2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온 가족 동심으로 즐기는 아트팝업

어반플레이, ACC에 예술체험장... 액션페인팅 등 8개 프로그램

누구에게나 동심이 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은 예에서 연유한다. 가족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트팝업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액션페인팅, 백드롭페인팅(오브제), 플루이드 비치 등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트팝업이다. 특히 자유자재로 물감을 뿌리며 작품을 완성하는 액션페인팅 등은 동심을 일깨우는 체험으로 제격이다.

어반플레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 뉴스뮤지엄ACC 주변에서 개설한 예술체험이 그것. 이번 아트팝업은 어반플레이가 광주 로컬 기업 (주)치른시빌과의 협업으로 마련됐으며 '누구나 동심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300평의 전시장에서는 액션페인팅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클래스 8개의 프로그램을 보거나 경험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액션페인팅과 힙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온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야광볼과 네온 빛을 활용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네온아트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액션페인팅' 공간. <어반플레이 제공>

어반플레이 서인희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뉴스뮤지엄ACC에서 진행되는 아트팝업 클래스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크리에이터, 기업과의 협업을 다채로운 로컬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팝업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두들존(벽낙서)이 운영되며, 대기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프릭미엄 모듈러 퍼니처를 만드는 로컬기업 킨더르의 라라브릭이 공간을 구성했다. 예매는 로컬 문화콘텐츠 중개 플랫폼 '모람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람플랫폼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